

대림 제 4 주일

기도서 223 면

제 1 독서 : 미 가 5, 2-5a
 제 2 독서 : 히 브 10, 5-10
 복 음 : 루 가 1, 39-45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2

강론



『복된 처녀』

박인호 신부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일까? 또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오늘 복음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갈릴레아의 한 시골 처녀는 가장 복된 사람이었다. 마리아는 참으로 복되신 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자신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되었던 것이다. 마리아를 복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존재임에 틀림없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모실 수 없기 때문이다. 우주 만물 중에 인간처럼 복된 존재는 없다. 인간이야말로 탁월한 능력과 복을 타고 났다. 과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하느님을 닮은 존재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인간, 복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껏 일한다 할지라도, 친구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재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해도, 크게 출세했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다 덧없는 것들이다. 위에 말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복된 인간이 되는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짜 복된 자가 되려면 마리아처럼 하느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길이 있을 뿐이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고, 하느님을 모시고 마음 설레이는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림절 동안 계속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들어왔다. “회개하여라!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라!”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들 가운데 오신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인간의 영접을 요구하는 만남이다. 마리아가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번 성탄은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임에 틀림없다.

우리 갈릴레아 시골 처녀의 신앙을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부터」 깊이 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게 하자! 이 얼마나 복된 삶이나!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성모송, 루가 1, 28, 43).



그래도 希望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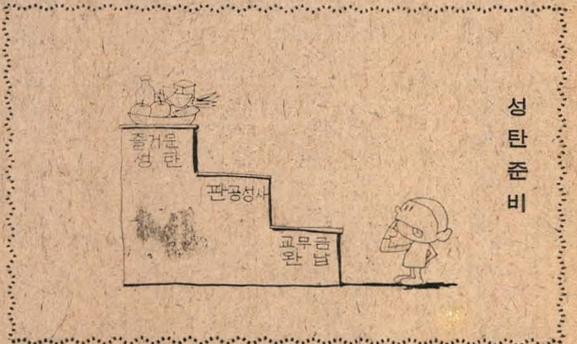
예수님은 왜 복세통에 태어나셨는가? 로마 황제는 은 천하에 호구 조차령을 내렸다. 예나 지금이나 한 마디의 명령은 백성들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요셉도 어쩔 수 없이 몸이 무거운 마리아와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긴 여행에 나섰다. 성지 지도를 놓고 직선거리로만 재어 보아도 140km가 넘는 거리이다. 밀려닥친 사람들로 시가지는 온통 난리여서 여관방 하나 못 구한 채 해산을 했으니,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심란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그래도 새 역사의 막은 오른 것이다.

한 해가 지고 있다. 도대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 왔는가? 어수선했다. 미문화원 방화 사건·장여인 사건·우순경 사건 그 어느 하나도 얼 청난 일이 아닐 수 없어 다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맘에 안든다.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다. 꼼꼼히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일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

어찌서 그 젊은이들은 우리의 오랜 우방인 미국의 문화원을 택해야 했는가? 서민들은 일생을 두고도 구경한 번 하기가 어려운 돈이 한 여인의 손에서 출을 주는 바람에 남자들의 어깨가 움추러들고, 경제계는 숨통이 막혀 애를 먹어야 했는가? 인간이, 그나마 민중의 공복이 그토록 잔인하게 동포의 가슴에 총을 쏠 수 있는 것인가? 왜 아직도 아파트 투기는 성해야 하는가? 누구 속시원한 대답 좀 해보아라.

속이 답답하다보니 한숨만 나오고, 그러다가는 함께 어우러져 진흙탕에 퐁퐁고 싶은 유혹도 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왜? 우리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복세통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형클어진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조용히 주님과 대화해보자. 그리고 용기를 갖고 내일을 살아가자.

숲 정 이 산책



전선의 달밤

군중 후원회에 관심을...

김 성 원(요사팻)

□ 군대간 아들이 유달리 생각나는 때가 있다. 그 아들의 생일날에 더욱 그렇고, 온 식구들이 모이는 명절날에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다. 비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눈보라가 문풍지를 쥐어뜯는 날도 예외는 아니다. 휘영청 밝은 달밤에 잠못이우며 뒤척이다 보면 군대간 그 아들이 미치도록 보고 싶어진다. 아들 친구를 만나면 또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다 알아빠진 아들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는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오늘밤도 모포나 차내지 않는지...

□ 군중사제의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대하고 보니 가슴이 뭉클해 진다. 사제의 성무수행은 어디에서나 거룩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포탄이 나르는 전쟁터에서는 달리 느껴진다. 하나의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뛰는 사제의 모습을 무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목자는 항상 양떼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군중사제는 전쟁터가 아니라도 장병들이 있는 곳을 찾아 다녀야 한다. 고지를 오르고, 해안초소를 찾고, 함대를 옮겨 다녀야 한다. 한창 나이의 사병들은 아무리 먹어도 허출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사제는 빈손으로 그들을 찾아 나서기가 매우 힘들다.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말썽을 찾는 장병들에게는 성물이나 기도서도 있어야 한다. 여기에 군중사제의 안타까움이 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 군중후원회는 군대 내에서의 가톨릭 전교활동을 지원하여 장병들에게 신앙심과 도의감을 고취시켜, 하느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애국애족하는 참된 군인이 되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군중후원회는 황금어장과 같은 군대 내에서의 영세 지원, 서적 지원, 교육 지원, 군중단 지원, 군교회 지원, 사제관 건립 지원, 행사 지원, 위문 행사 등 그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젊은이들은 그 중요한 한 시절을 군대에서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사복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그러한데도 우리를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군중후원회의 필요성이나,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교구도 그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제 정식으로 교구장의 인준을 받게 되었다. 그간 우리 교구의 업적은 너무나 미미했지만, 나름대로의 준비기간이었다. 그대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미사를 드리고, 할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제 명실공히 교구차원에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이다.

□ 회원이 되고 싶은 교형자매는 본당신부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무장님께 등록을 하자. 한 달에 1천원씩(또는 그 이상) 내는 회비가 군대에 간 우리 아들을 영신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준다.

(교구 군중후원회장)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

어느날 밤 예수가 이 세상에 내려왔다. 그는 인간생활을 좀더 잘 알기 위해서 도회지의 중심에 서 보았다. 여기 저기 모두 즐거움에 벅차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로 가득차 있었다. 그는 맨 먼저 교차로를 지키는 교통순경에게 물었다. "크리스마스가 무얼하는 날입니까?" 순경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당신 대체 어디서 왔소?" "베들레헴에서 왔네요" "베들레헴, 들어본 일이 없는데... 아마 오래된 나라인가 보군... 크리스마스, 그건 아이들의 명절이 아니요" 순경은 통명스럽게 한마디 던지고 가버렸다.

크리스마스! 어떤 음식점에서도 이런 글씨가 번적이 고 있다. 그런데 대체 크리스마스가 무엇일까? 예수는 자동으로 여닫히는 문을 통해 큰 요리점으로 들어섰다. 거기에 대문짝만한 큰 글씨로 크리스마스 요리 2만원 하고 붙여 놓았다. 사방을 둘러보니 잘 차려입은 신사 숙녀들이 가득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부인 하나가 그를 발견하자 즉시 보이에게 "여봐요, 이 집에는 저런 거지도 마구 넣고 있나?" 그러자 보이는 로마병사와 같이 역센 힘으로 그를 몰아내고 말았다. 양쪽에 즐비하게 늘어선 겹포와 겹포사이를 개울 물이 흐르듯 물결치는 군중에 섞여 예수도 휩쓸려 갔다. 어느 곳을 가나 장난감 뿐, 말구유는 한군데도 없었다. 이렇게 예수는 여러곳을 방문해 보았지만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흥분에 휩싸여 물 깊듯이 소란한 거리를 예수는 계속 헤매었다. 그날 밤 자기 어머니가 베들레헴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제 지칠대로 지쳐 발을 질질 끌고, 마음은 슬픔에 젖어 힘없이 교외로 나섰다. 거기에는 큰 집이 하나 있었다. 천천히 발걸음 옮겨 창가에 가서 안을 드러다 보니 맨 윗쪽에 자기의 초상이 있고, 다른 작은 방에는 아름답게 꾸민 마구간이 있었다. 잡자기 한 아이가 달려와서 "아저씨 출지요? 이리 들어오세요. 이 안에 불이 있어요" 예수는 아이의 말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난로가에는 청년과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쪼은 신부가 이야기 하는 말구유 안의 예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모두들 예수를 친절히 맞이하면서 "저녁은 하셨나요... 그럼 무얼 드시겠어요?" 예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 주욱 훑어보았다. 특히 젊은 신부에게 눈길을 돌리고는 "나의 벗이여, 여기는 신부가 한 번 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본 다음에 도시를 한 아름에 안두이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뚜렷하게 말했다. "나는 군중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이 끝나면서 그의 모습은 차츰 사라져 갔다. "바로 '그분'이시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렇다 '그분'이 틀림없다" 신부가 받아서 이렇게 외쳤다. 저 크리스마스날 밤 이후 이 본당의 신자 중에서 해마다 하나 둘씩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는 신부가 하나뿐인다는 일은 없으리라.

-사랑을 구하는 마음에서-

독일제 치질약
에이널 좌약 입하
사마귀 제거약
베루말 재입하
시민약국
4-0009-3-3338
약사 김병익(마텔로)

□ 각종 신발 도산매
새마을신집
숙녀화 · 아동화 · 특수화
남부시장 제일새마을금고 앞
김문식(베드로)

□ 마춤·대여
웨딩드레스·약혼복·연주복·파티복·페백의상·부케 및 꽃다발·신부화장·아기드레스 전화 6951
신부의 집 정인기(논지노)
서 울
□ 신탁은행
팔달로
동서관 통도로
우체국
신부의집



□ 200주년 기념 전주교구 중앙위원회의

아직 200주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지만 교구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200주년 기념 전주교구 중앙위원회의가 지난 12월 7일 교구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교님께서는 200주년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 해주시고 우리 교구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강조하셨는데 ① 정신운동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교장이 순교의 고장임을 강조하고 순교정신을 양양하는 목적으로 한국 교회사를 읽고 배우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② 기념행사 부문에 있어서는 순교자 현양대회와 교구의 주보를 모시고 현양하는 대회를 가져 교구의 일치를 도모하며 ③ 기념회의의 부문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하는 기념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④ 기념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7개 본당을 84년까지 완성하고 성지정리, 성역화, 치명자산 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200주년 기념 전주교구 기구를 확정하였고 이에 따른 위원을 선임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분과별로 모임을 갖고 1월 10일까지 제출되며 차기 모임은 83년 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갖게 된다.

□ 군중후원회 50만원 기증

전주교구 군중후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사목을 하시는 교구소속 군중신부님들께 성탄을 기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50만원을 기탁해 오셨다. 군중후원회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군중후원회의 발전을 기원한다.

□축! 한들 본당 전화 개통

전화가 없어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한들 본당에 지난 14일부터 전화가 개통되었다. 진심으로 한들 본당에 축하를 드린다. 동료 사제 한 분이 전화기 한 대를 기증했다고 한다. 전화번호는 진안 3 1 7 7 번이다.

□결실 맺는 어린양 공소 보내기 운동

조용하게지만 어린양 공소 보내기에 뜻있는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중앙성당 주일학교 자모회에서 어머니들 몇 분이 매월 33,000원씩을
- 특수 사목을 하시는 신부님들 몇 분이 연 20부씩을
- 익명으로 3분께서 각 연 10부씩을 맡아주셨다.

또한, 진동 성당 교리교사들은 24일, 25일 양일간 일일 찾집을 하여 그 수익금을 어린양 공소 보내기에 기증할 예정이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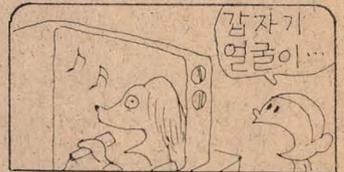
□ 은인을 구합니다.

금마 본당 김 반석 신부님께서 매주 미사를 집전하시는 천마부대 군인 신자들을 위하여 성서, 성가집, 기도서와 신앙서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금마 전주교회 ☎ 2 4 4 번

교회서적 · 성물 · 성탄 카드 **성 바오로 서원** ☎ 3 3 9 8

요심이 (489) 김병오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썬타**
구 역전 오거리 전화 ☎3032
윤(베드로) 종선

□ 수강생 모집

고전 동양 매듭

도교육청 정문 바로 앞

매듭 전문 연구실
임 영 수 (테레사)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을 하시는 교우
에게는 혼배반지를 기념
으로 기증함

보 석 장
군산경찰서 전북은행 앞
전화 ☎ 6603
한 철 재(비오)

○ 혼수(회갑) 옷감 | 도
○ 특수 파티복 | 매
○ 고급 침구류 | 상
○ 각종 솜 일체 | 장
○ 커튼지

서울 주 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남녀학생 자유복 ·
사보네 아동복 · 신사복

대도의류종합백화점
(구, 금광상회)
(교우 환영)
군산시 명산동 152번지
☎ 2-5530
김 광 수 (라파엘)

정화조(수세식)
일반 변소 청소업

(주)전북기업사
전화 ② 2 7 4 0
8 7 7 3
배 남 식(토마)
육 태 수(토마)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축! 영세 : 가톨릭 센터 예비자반, 22일 저녁 7시, 장소-가톨릭 센터
2. 국군 장병을 위한 위문품, 위문금, 위문편지 모집 : 20일까지, 사목국에서 접수합니다
3. 82년 M.B.W 참석자 모임 : 28일 12시 30분-6시, 장소-중앙성당
4.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기초코스) : 1월 3일~6일, 장소-가톨릭 센터 교육국이나 M.B.W 추진회에서 접수합니다
5. 축! 영명일 : 26일-성 스테파노 김 치삼, 김 환철 신부님
6. 26일·1월 2일 순점이 공지사할 : 토요일(25일과 1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각 분당 공지사함을 꼭 월요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양)

전화 ①711~3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 보좌	함기인
보좌 신부	박인협
사도 회장	김인협

- ※ 성경읽기 : 루가 1장~5장
1. 성모회 : 공식미사 후 2. 프란치스코 3회 : 26일
 3. 주일학교 : 새싹들의 잔치-23일 오후 6시, 강당
 4. 성탄꽃 불현 :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5. 판공 못보신 분 : 21일~22일 편집 성사보세요
시간-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
 6. 성탄미사 : 성탄 전야미사-25일 0시, 성탄대축일(25일)-9시·10시30분·7시, 26일-6시·9시·10시30분·7시
 7. 성전신축현금 신입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보령(금 1돈), 임미숙·장은자·이윤희(각 5만원)
박복자(10만원), 서성진(1만원), 국성희(3만원)
신축현금 계 110,161,000원

□ 지난주 봉헌금 : 682,130원 교무금 : 1,570,9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수.사 ⑦03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축! 영세식 : 24일 오후 3시(유아세례 같이) 22일까지
 2. 사도회 확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분당 판공일정 : 남노·우아동-20일, 중노1가-21일 중노2가-22일, 인후동-23일(시원지 제출하세요)
시간-오전 9시~12시, 오후 2시~5시, 밤 7시~9시
 4. 성탄미사 : 24일 밤 11시30분, 25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어린이), 4시-아파트, 저녁 7시, 공소 합동미사 오후 2시(다리리 공소에서)
 5. 각 분과 위원 명단
신교분과-김종표·이태영·최인화·오정옥·박태복
김규래·노정성·전영남·김형태, 전례분과-박종길·이일규·이중관·장옥남·최명자·양광식·채용
김완준·은경순·임주태, 봉사분과-모보일·김영옥·손소부·김명진·노영석·고여옥·박형근·성모회장, 제정분과-유종영·한승희·양민식·박종용·박준근·임종환·이병학
- 지난주 봉헌금 : 분당 290,720원, 아파트 38,200원
지난주 교무금 : 분당 361,000원, 아파트 89,0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영세입교자 인도봉헌서 : 12월까지 봉헌합니다
1월중 예비자교리 개강 예정
직장인반, 부녀반, 청년반 모집중
 2. 영세식 : 23일 오후 3시, 대부모님과 함께
영세자 축하식-25일 10시30분 미사후
 3. 사도회 전체회 : 오늘 공식미사 후
 4. 성탄절 이웃돕기 : 성미, 성금 20일까지 봉헌합니다
 5. 레지오 마리에 각 단장님 모임 : 21일 저녁미사 후
 6. 성사 못보신 분 : 20일~21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성사보세요
 7. 성탄 미사안내 : 24일 저녁 11시30분, 25일 오전 10시30분, 저녁 7시
- 지난주 봉헌금 : 510,52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영세식 : 24일 오후 2시(영세후 환영식)
2. 성탄미사 시간 : 25일 0시 미사, 오전 10시30분 미사 후 성체강복, 저녁 7시(24일 저녁미사 7시를 6시로)
3. 사도회 : 26일 저녁미사 후
4. 첫 철레 7 : 1월 1일, 첫 철레 5 : 1월 6일 저녁 7시
5. 성탄행사 : 24일 저녁 7시30분부터 10시까지

6. 복권판매 200원, 주회-대학생회, 후원-사도회
 6. 성탄 자시미사 : 해설-최정순
독서-①조성호 ②김인식, 기도-양규철
성탄 10시30분 : 해설-유덕열
독서-①이경호 ②이갑진, 기도-해설자
26일(차주) : 해설-황만금
독서-①김성원 ②송영자, 기도-황만금
- 지난주 봉헌금 : 443,225원

(서학동)

전화 ③2276번

주임 신부	김명환
사도 회장	황인구

1. 성탄 미사시간 및 메시아의 밤 행사
※ 세부적인 것은 별도 인쇄물 참조 바람
 2. 영세식 : 24일 저녁 7시(성탄전야 미사중)
 3. 주보축일 행사 및 분당신부 영명축일
26일(성가정주일) 공식미사 후에
 4. 할머니회 : 공식미사 후
 5. 판공성사 안보신 분 : 22~23일, 오후 4시~6시까지
 6. 차주전례 : 독서-①박형석 ②함문권
- 지난주 봉헌금 : 217,485원 교무금 : 398,000원

(숯정이)

전화 ⑦3766, 수.유 ③9567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김수걸

1. 판공성사 : 시간-오후 2시~4시
20일-진북2동 1·6반, 21일-진북2동 2·5반, 22일-진북2동 3·4반, 23일-진북2동 7반·기타
 2. 예비자교리 : 매주 공식미사 후와 수요일 오전 10시 매일 오후 7시30분
 3. 영세 할고 : 23일 오후 2시, 영세식 : 24일 오후 3시
 4. 성탄행사 및 미사 : 성탄행사-24일 저녁 7시30분~11시, 자정미사-11시30분, 25일 미사-오전 10시, 오후 7시(주일학교 미사 없음)
 5. 성탄 성가연습 : 매일 7시30분
 6. 숯정이 유치원(☎ ③9567) : 원아 모집중
 7. 성령기도회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8. 차주전례 : 해설-정주복, 독서-고재권·김중안, 기도-이강노·김경주
- 지난주 봉헌금 : 154,591원 교무금 : 466,700원

(전동)

전화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준, 수.사 ③322, 보좌 신부 박병준, ③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성화회 : 차주 공식미사 후
 2. 피미시움 : 오늘 오후 2시
 3. 글라라 형제회 : 차주
 4. 주일학교 잔치 : 23일 오후 7시 강당
 5. 어린이날 공소 보내기 일일찾집 : 24~25일, 교리교사회
 6. 중·고생 지도자 임원개편 : 회장-서준교
 7. 성탄미사 : 전야미사-25일 0시, 대축일-(25일) 11시, 어린이미사 오후 3시, 26일은 주일입니다
 8. 추계판공 : 18일-초·중·고·직장인, 20일-전동·서교동·동원산동, 21일-동교동·중앙동·서원산동·기타동, 22일-풍남동·남노송동·경원동·다가동
 9. 미사시간 변경 : 주일-첫미사 6시, 중·고생미사 9시 공식미사 10시, 아동미사 오후 3시, 저녁 7시
 10. 성령기도회 : 매주 <월> 오후 7시 강당, 누구나 참석
- 지난주 봉헌금 : 592,600원 교무금 : 613,000원

(파티마)

전화 신부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수.녀 ②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가을 판공성사 : 오늘 주일로 끝납니다
 2. 성사 못보신 분 : 24일(성탄전야)에 성사 있음
 3. 성탄 밤미사 : 24일 11시30분
 4. 성탄대축일 : 25일 10시, 오후 학생미사 없음
 5. 유아세례 : 26일 오후 3시30분
 6. 기사회 : 83년 1월 1일 첫토요일 오후 2시
 7. 유치원 원아 모집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93,385원 교무금 : 642,000원